

8장.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집에 대한 심판

8장의 처음 석 절은 7장의 심판과 내용적으로 이어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한 말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백성의 완고함과 그에 대한 심판이 10장까지 이어진다.

1. 가증한 집을 심판하심 (8:1-3)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무덤에 묻힌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하신다. 높은 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뼈가 무덤 밖으로 나온다. 전쟁에서 죽은 자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밥이 되어서 뼈만 남게 될 것인데(7:33) 이제 무덤에 있던 자들의 뼈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심판의 엄격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무덤의 뼈를 내놓으면 해와 달과 별빛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 사실을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시킨다.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서 견고, 간구하고, 경배하던 일월성신 앞에 놓이게 된다. 만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참된 신이라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데, 그 신들은 자기를 섬기다가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서 묻게 할 수 없다.

그 결과 그 뼈들은 분토와 같이 되고 그 땅은 부정하게 되었다. 뼈들이 뿌려진 그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부정한 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곳으로 흩어진 자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난에 빠진다.

2. 눈먼 백성과 엉터리 지도자들 (8:4-12)

1) 눈먼 백성 (8:4-7)

이 부분에서도 ‘돌아옴’ [슈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옴[슈브]을 촉구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는 자’ (8:5)라는 별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간곡히 돌아오기를 청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면서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각기 자기의 길을 행한다. 첼새들은 돌아올 줄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2) 믿을 수 없는 지도자 (8:8-12)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하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 서기관은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안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 아내와 토지를 빼앗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으나 수치를 모르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계속하여 그 길을 걷는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심판하여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8:9, 12).

3.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 (8:13-17)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여도 그들은 깨우침이 없고, 외적을 보내어 심판하여도 회개하는 대신에 "건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 ‘독한 물’은 성안에서 신선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더러운 물만 사용하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예언자들이 약속한 평안과 치유가 없으나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소리가 들린다. 북쪽의 단 지역에서 말들이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외적의 침입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어떤 술객의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다. 민수기 21장에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독사를 보낸 것처럼 그 백성을 멸절시킬 독사를 보내실 것이다.

4. 예언자의 슬픔 (1) (8:18-22)

거역하는 백성에게 북방의 군대를 보내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후에 예언자는 슬픔을 표현한다. “나의 슬픔에는 치료책이 없고 나의 마음이 번뇌한다” 하고 고백하였다. 먼 땅으로 끌려간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탄식한다. 그 탄식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으로 여호와를 격노케 한 사실을 지적하신다. 징계를 받는 그들이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돌이켜야 할 것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한탄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났건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여호와께서는 딸 시온이 깨어지고 부상당한 것을 슬퍼하신다. 그들은 길르앗의 유향이나 의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에는 길르앗의 유향이나 의사로는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병이 깊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목상과 실천:

피상적인 치료와 진정한 치료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아 때에 정결케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성전이 있으므로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태도로 살았다. 성전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았을 뿐 아니라 성전에도 가증한 것을 세웠고, 동네마다 우상을 세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백성의 상처를 보고서 그 심각함을 알려주지 않고 평안하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라면 문둥병인지의 여부를 바르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인데, 병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지도자는 치료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심판을 받을 대상인 것이다.

8장 후반부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탄식을 기록한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자기의 어려움만을 호소할 뿐이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깊이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께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신다. 그들은 길르앗의 유향이나 의사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버렸으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예언자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슬피 운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음을 보고서 슬퍼하면서 탄식한다. 애통하는 데에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8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실 때에 조상들의 뼈까지도 분토같이 흩어지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남아 있는 자들은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서 써 보십시오. (4, 5절)
3. 예루살렘 백성이 거짓을 말하고 악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행하는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말씀하십니까? (6절)
4. 1)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와와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지혜롭다’ 여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8절)
2) 여호와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8절)
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 하시는 근거로 든 것은 무엇입니까? (9절)
4) 그들은 무엇을 빼앗기는 벌을 받을 것입니까? (10절)
5. 백성들은 여호와의 진멸 소식을 듣고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어디로 들어가서 멸망하자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14절)
6. 예레미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내다보며 슬퍼하셨습니다? (11, 19, 21절)